

큰스님 수행한담

탐진치의 끈 푸세요



1967년 보살계를 마치고 동산스님(왼쪽에서 두번째)과 함께한 덕명스님(맨 왼쪽)

때 성불하리라는 다짐으로 밤잠 안자면 열심히 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즐겁고 환희심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함께 정진하던 많은 스님들중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도반이 있었어요. 인곡스님의 제자였고 해암스님의 사제였던 해곡스님은 같이 강원에서 공부할 때 하루에 2장 외우기도 절절때는 경전 40장을 토도 없이 외워 주위를 놀라게 할 정도로 비범한 분이였어요. <법화경> 7권을 모두 외울 정도로 열심이었다. 그런 분이였죠. 나하고는 특별한 인연이 있었는지 부산 금정사에서 함께 지냈던 적이 있었는데 나는 페디스토마에 걸려 있었고 해곡스님은 결핵으로 앓고 있었어요.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며 서로 많은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내 병세가 악화되어 각

부하라고 일러주셨는데도 짧은 월기에 공부 욕심이 너무 많았어요. 참선을 하면 금방이라도 성불을 이룰 것처럼 재방에 다니면서 공부를 했는데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다 병을 얻고는 했죠. 수행자는 무엇보다도 자기가 가는 길, 즉 성불에 대한 믿음을 세우고 걸고 쉬지 않으리라는 정신으로 꾸준히 생사를 결단해야 합니다. 경전에 '믿음은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가 되어 일체의 선법을 길러낸다'고 했습니다. 진각 해심스님도 확고한 믿음이나 뜻을 세우지 않고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하거나, 반은 나아가고 반은 물러난다면 지혜를 증득하기가 어렵다고 했어요. 출세간의 큰 인물이 되려면 모름지기 학주를 세워 단단한 것은 강철을 녹

'나의 불성을 밝히겠다' 각오로 참구하고 마음공부 하세요 정진에는 승가재가 따로 없어요

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좀더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세금만 부담하게 부과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을 겪었습니다. 또 한 번 삼보를 잃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은 부산 불교연합회를 창립한 것입니다. 그때 까지만 해도 종단별로 활동을 하는 것이 였던 시절이었는데, 다른 종단 어른들이 참 기뻐하셨어요. 먼저 찾아와서 인사를 하는, 하심하는 마음을 기쁘게 여기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부산시장에게 종단 책임자와 실무자를 초청해 달라고 부탁을 해 모임을 갖게 되었어요. 부산시장은 자리만 만들고 슬그머니 빠지고 내가 시장님이 우리들 모아 준 것은 불교발전을 위해 연합기구 하나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만들었죠. 그래서 참석했던 사

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좀더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세금만 부담하게 부과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을 겪었습니다. 또 한 번 삼보를 잃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은 부산 불교연합회를 창립한 것입니다. 그때 까지만 해도 종단별로 활동을 하는 것이 였던 시절이었는데, 다른 종단 어른들이 참 기뻐하셨어요. 먼저 찾아와서 인사를 하는, 하심하는 마음을 기쁘게 여기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부산시장에게 종단 책임자와 실무자를 초청해 달라고 부탁을 해 모임을 갖게 되었어요. 부산시장은 자리만 만들고 슬그머니 빠지고 내가 시장님이 우리들 모아 준 것은 불교발전을 위해 연합기구 하나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만들었죠. 그래서 참석했던 사



이 용택 <경주관광개발공사 사장>

얼마전 나는 경주관광개발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취임과 동시에 지금 경주에서 열리고 있는 '98경주문화엑스포의 홍보담당이사로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경주는 우리나라 천육백년 불교역사가 그대로 숨쉬고 있는 곳으로 불자인 내가 경주에서 우리문화를 알리는 일을 하게 된 것은 그야말로 천생과 금생의 크나큰 인연이 아닌가 싶다.

문공부에 등록하고 회장을 맡기도 했다. 당시 불교계로서는 최초의 정부등록 청소년 단체로서의 성과를 이뤄냈다. 그렇게 회장을 시작한 이후 가장 큰 문제가 도량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사재를 털어 본관인 경북 성주에 대흥사라는 절을 지어 종단에 헌납하고 청소년 교화도장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나의 23대조 할머니는 설총의 손녀이다. 나는 원효대사의 외손인 셈이다. 이같은 집안내력으로 나의 조상들은 대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생활해 왔다. 우리 어머니 역시 독실한 불자로 시집을 와서도 일심으로 부처님께 기도를 했다. 그 공덕으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였고, 8남매인 나와 형제자매 역시 그러한 어머니의 기도로 태어나 지금껏 불교에 귀의해 원만한 삶을 살아오고 있다.

내가 알고 있는 불교는 스스로가 자신을 발견하는, 자기의 마음자리를 알아내는 것이다. 깨달음이란 경전, 법문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스스로 깨닫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알고 있다. 한 절에서 7일 기도를 하던 중에 내게도 유사한 경험이 찾아왔다. 1974년 말 추운 겨울 아침, 법당에서 2시간동안 관세음보살을 외우며 기도했다. 그런데 어떤 스님이 법당을 들어와 뒤에 앉아 계속 내게 법을 하길래 뒤를 돌아보았는데 아무도 없었

'성내지 말고 베풀어라' 평생좌우명 경주문화엑스포 홍보는 전생 인연

70년대 초 나는 중앙정보부에서 국가안전보장업무에 종사했었다. 그때 점점 물질문명화되어 가는 현실에서 인간의 정신문화가 황폐해지고, 민족의 정기가 사라지고, 가치관이 전도되는 상황에서 모든 국가 존립의 근

다. 스님의 말씀인 즉 '모든 일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돌아서 행하면 이롭다. 죄를 짓지 말아라. 성을 내지 말아라. 베풀어라. 그러면 다 되는데 뭐 하러 여기 앉았느냐. 달로만 불교를 믿고 행하면 믿고 행한다'라는 내용이



원인 가정의 존립도 위태로워해지지는 것을 보면서 국민의 정신문화 선도 없이는 어떠한 행복과 안정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우리의 가치관을 바로 세우려 우리민족의 정신적 토대가 무엇인가를 생각했다. 불교였다. 1600년 우리나라의 불교역사가 바로 우리민족의 정신적 지주요, 삶의 토대를 일궈왔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러나 현실에서 불교는 잘하고, 시주한 만큼 복준다는 잘못된 기복불교로 흐르고 있었다. 정법불교를 홍보하는 일이 우리의 미래를 보존하는 길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굳히게 되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을 위한 교화사업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었다. 내가 기억하던 방에 들어와 깜박 잠이 들었는데 비몽사몽간에 똑같은 스님의 말씀을 반복해 들으며 꿈인 듯 이상한 형상이 내앞을 지나갔다. 친구 2명이 새차를 타고 가고, 나는 한 지프를 타고 가는 꿈이었다. 그때 그곳에서 나는 자신을 발견했다. 일순간 평소 생활속에서는 성질이 급해서 작은 일에도 참지 못하고 화부터 내고, 남을 배려하는 법없이 그저 내일만 잘하면 된다는 권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나를 돌아보게 되었다. 그리고는 차츰차츰 내 행동과 말씨와 모든 잘못된 것을 스스로 고치게 되었다. 환청인듯 내게 들려왔던 그 스님의 말씀을 현재도 내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다. 그런 경험을 한 후 나는 바로 절을 나와 절을 짓고, 청소년 교화사업에 더욱 매진하게 되었다. <계속>

불법은 모든사람에 차별없이 열린 문 "자신 방생해야 일체법의 실상 알아요"

월이 심해져서 그 당시 하늘에 별따기였던 진관권을 하나 얻어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그것을 해적스님이 아주 부러워 했는데 그때 선뜻 그 진관권을 건네지 못했던 것이 지금도 한이 돼요. 그때 내가 그 진관권을 줬더라면 해적스님이 더 살 수 있었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요. 아까운 도반을 잃지 않았을 것을... 하며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는 병이 들어도 공부권을 놓지 않는 남자들이 많았어요. 그 시절에는 변변히 먹지를 못해 병에 걸리기도 했지만 공부를 빨리 이룰려는 욕심이 커서 병을 많이 얻었어요. 은사스님께서는 '평상심이 곧 도'라고 늘상 일러 주시며 특별한 것에서 공부를 찾지도 말고 서두르지도 말고 하셨는데도 왜 그리 마음이 급했는지... 직녀가 베투에서 실을 짜듯이 공

이 고 두들겨서 만들듯이 나약한 마음도 내지 말고 물러설 마음도 내지 않고 진리의 길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일체의 시비를 떠나야 합니다. 한때 방사사 주지직도 맡았지만 이렇다 할 무엇을 이룬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요. 성격적으로 책임을 맡으면 완수해야 하고 남보다 잘하고 싶은 승부욕이 강해서 개인적으로는 제일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로 기억됩니다. 그 당시 범어사는 빛도 많았고 종단에 사기꾼들이 끼어들어 절판을 속여 팔아버려 땅을 많이 잃어 버린 상황이었죠. 그 땅을 되찾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덤비고 보니 10만평 정도의 땅을 되찾았는데 피고가 200명이 넘는 어려운 싸움이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추진해 3만평 정도의 땅

람들이 발기인이 되어 부산불교연합회를 창립하게 된 것이죠. 이후 불교의 공동관심을 같이 의논하고 힘을 모아 부산시의 불교행사를 같이 치를 수 있어 불교연합에 특목히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얼마전 백양사에서 무차선회를 열어 세간의 관심을 끌었지요 그것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일입니다. 본래 불교자체가 무차대회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은 본래 차별이 없고 모두에게 다 열려 있기 때문이지요. 지식이 많은 적든, 돈이 많은 적든 상관하지 않고 모두를 향해 열려 있는 것이죠. 요즘 출가자의 학력을 제한하고 있는데 그것도 엄격히 따지면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제대로 하려면 종단차원에서 학교를 만들어 어릴 때부터 원하는 이들을 교육하고 평가해 승려의 자질을

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좀더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세금만 부담하게 부과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을 겪었습니다. 또 한 번 삼보를 잃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은 부산 불교연합회를 창립한 것입니다. 그때 까지만 해도 종단별로 활동을 하는 것이 였던 시절이었는데, 다른 종단 어른들이 참 기뻐하셨어요. 먼저 찾아와서 인사를 하는, 하심하는 마음을 기쁘게 여기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부산시장에게 종단 책임자와 실무자를 초청해 달라고 부탁을 해 모임을 갖게 되었어요. 부산시장은 자리만 만들고 슬그머니 빠지고 내가 시장님이 우리들 모아 준 것은 불교발전을 위해 연합기구 하나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만들었죠. 그래서 참석했던 사

Advertisement for '반야심경' (Heart Sutra) by Sunshun Buddhist Center. Includes text about the sutra's benefit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center.

Advertisement for '金堂藝建' (Gin-dang Art Construction). Specializes in traditional Korean architecture and restoration. Includes contact info and a photo of a building.

Advertisement for '오' (O) skin care products. Claims to be a 'miraculous medicine' for skin issues. Includes contact info for '오' brand.

Advertisement for '탱탱크림' (Tang-tang Cream). A skin cream product for hydration and skin improvement. Includes contact info for '한국원'.